

창조도시 볼로냐의 쇠퇴공장지역 재생 현지사례연구

Field Case Study on Regeneration of Decaying Ex-factory area in a Creative City 「Bologna」

이 연 숙*
Lee, Yeunsook

윤 혜 경**
Yoon, Hyegyung

소 갑 수**
Soo, Kabsoo

Abstract

In urban and community planning, there has been emerging paradigm of regeneration, taking place of demolishing first, and new development. Furthermore, the new concept of creative city has been experimented as a leading sub-paradigm of urban renaissance in response to the global city. It was developed to cope with the decline of the manufacturing industry, a rise in unemployment and a welfare state system in danger. In cities of the concept, there has been much change in existing urban space and accordingly wisdoms and knowledge has been accumulat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crutinize urban spatial modification of a regenerated model city 「Bologna」. The target area of analysis was a ex-factory ailing district. Field site visit, deep interview with professionals and citizens, walk through observation, and historical literature review on the site were employed. As results, its history, retrofit process and current change were systematically described. The results showed ways of thinking, attitude toward historic preservation, technology, and creativity of using existing buildings for contemporary functions. This has a significant implication on Korean urban development which mostly, has ignored the existing value of community and buildings.

키워드 : 쇠퇴지역 재생, 건물 재활용, 리모델링, 커뮤니티 시설, 여가사회 대응형 도시정비, 이태리 볼로냐, 지역문화 센터, 문화도시, 창조도시

Keyword : Decaying Area Regeneration, Building Recycle, Remodeling, Community Facility, Regeneration for Leisure Society, Culture City, Creativte City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대가 변함에 따라 도시의 기능과 인간의 삶의 질 및 요구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지역의 특성이 바뀌고 그 안의 건물들이 공가가 되거나 쇠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한 지역의 공간이나 건물의 쇠퇴는 자연적으로 그 지역 전체를 침체되게 하거나 우범화시켜 그 부정적 여파가 확산되기 쉽다. 퇴색하는 지역을 보다 매력 있고 차별화된 기능과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체성 있는 공간으로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완전철거 후 재개발과 신축으로 일변했던 한국의 도시 공간에 대해 최근 서서히 도시재생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근래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Street 르네상스, 한강 르네상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 등에서처럼 부활과 재생을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우리는 사회변화에 따라 공간을 계획하고 건설해왔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흐름은 기존 도시의 기능에 상당한 의구심을 제기해 오고 있고, 그것이 형성되어온 방법에 대해서도 새롭게 들여다보게 하였다. 이에 따라 기능이 쇠퇴하여 생기게 된 많은 지역과 옛 건물들을 새로운 현대적 요구에 맞게 재생할 필요가 있는 시각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학계에서도 기존 자원을 재생하고자 하는 연구논문(강동진, 2003 ; 김영 외, 2007; 김희진, 1994; 박경옥 외 2006; 박승수, 1984; 이지현 외 2007; 이한기 2002; 이향란 외 2008)과 문화 마케팅 연구(오동훈 외 2007) 등 재생에 관한 논문들이 증가하고 있다.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수석부회장(yeunsooklee@yonsei.ac.kr)

** 연세대학교 밀레니엄환경디자인 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도시재생B02)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기능이 쇠퇴하여 사용하지 않게 된 이전 공장지역을 예술문화의 지역으로 재생하여 지역사회의 활기를 되찾고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한 도시재생 사례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문화적 재생을 강조해온 창조도시 이태리 블로나시의 재생 화두 지역인 이전 담배공장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재생과정을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건물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간과하는 한국의 재개발 방향에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연구로서 연구 분석 대상지인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각적으로 실증성을 지닌 현장 장면을 관찰하며 기록하고 이를 범주화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기술하며 평가하는 Walk-through Evaluat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지조사계획은 해당 재생지역에 관한 정보가 일반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취득 가능하지 않고 대개 정부행정부서내의 보고서등 기록형태로 존재하여 접근이 어렵고, 또 현장에서 직접 재생과정에 연루된 직원들이 가질 수 있는 정보유형은 직원이 이동함에 따라 취득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러한 부수적 해석 정보는 현지에서 탐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공식적으로 접촉하여 정보제공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블로나시의 도시재생담당책임자인 부시장과 부서장을 인터뷰하는 계획이 사전에 준비되었다. 이 두 전문가는 그 지역 뿐 아니라 블로나시 전체 재생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가로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정보와 기록 자료에서 얻을 수 없는 배경설명정보를 취할 수 있는 정보소스로 활용되었다.

해당지역 이전 특성에 대한 정보는 지역도서관을 방문하여 사서와 면담하고 사서가 해당건물 사진, 설명, 당시 관련되었던 인물 등에 대한 정보를 탐색 제공해주었다. 한편 이러한 탐색과정에서 재생당시 근무하였던 직원들 중 특별히 재생과정을 개인적으로 기록해 둔 직원이 있었음을 알게 되고 이 직원이 정리한 자료를 현장의 직원을 통해 간략한 세미나 형태로 설명을 들었다. 한편 일반인의 관점에서 재생과정을 지켜봤고 또 재생 후 지역을 사용하는 주민대표로서 그 지역에 속해 있는 노인회관을 운영하는 소장을 1시간 정도 인터뷰하고, 소장 자신으로서 또 여러 주민들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대표자로서 그 지역 재생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이렇게 하여 재생사례 지역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 연구 방법 및 개요

구분	연구방법	개요
주된 연구방법	현지방문 관찰 조사 방법	실제 재생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관찰 기록한 실증적 시각적 자료를 주된 정

	(Walk-through Evaluation)	보로 활용
부수적 연구방법	문헌조사	블로나 시 재생에 관한 문헌과 해당 지역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탐색하여 활용
	행정담당 공무원 인터뷰	블로나시 도시개발 및 주택담당 부시장과 도시재생 부서장을 통해 해당지역 도시재생의 종합적 정보, 배경에 대한 자료를 취득하여 활용
	재생과정에 관련된 당시 직원 인터뷰	도축장과 제빵공장의 역사 및 재생과정에 대해 알고 있고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를 활용
	재생전후 및 과정을 지켜본 주민대표 인터뷰	해당지역에 위치해 있는 노인회관 소장을 통해 지역재생 전후의 비교, 주민들이 느낀 재생의 중점적 효과 및 개선점 등을 취득하여 활용

2. 문헌고찰

2.1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전환

도시에서 인간의 삶은 일정한 질적·양적 수준의 물리적 공간 환경을 필요로 한다. 물리적 공간 환경은 쉽게 변경되기 어려운 반면, 인간의 삶은 시대적·문화적 패러다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공간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때 요긴하던 도시의 구조물과 시설물들이 그 가치가 저하되고 사회를 침체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기도 하여 지금까지 새로운 개발로 외형적 팽창을 해 온 세계의 도시들이 산업구조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재개발의 목적도 물리적 환경의 정비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삶의 여건을 회복하는 총체적 방향으로, 신도시개발과 확장으로 일변하던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수도권 지역의 모든 대중소도시들이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혁신도시·기업도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획일화된 고층아파트 양산으로 초래된 수많은 문제들을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편중된 물리적 환경 건설 경험으로 인해 도시의 종합적 문제를 대응하는데 더욱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산업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의 절대적 감소와 인구 구성의 변화는 도시의 침체는 물론 한국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이제 성장 일변도로 진행되어온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시점에 왔다. 이미 선진국들은 새로운 경쟁력을 찾고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도시를 쇠신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및 사회·문화 환경과 물리적 공간 환경을 통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수단의 개발과 기술과 제도 정비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5년간 도시재생 관련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0조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를 위한 정비 수준은 물리적 정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

며, 종합적인 면에서 도시재생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40% 수준으로 인식되고 있다.¹⁾ 또한, 지금까지 도시 주거지는 고층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주거문화의 획일화를 주도해 왔으며 이로 인해 물리적 환경의 파괴뿐만 아니라 정주욕 약화, 공동체 의식 파괴, 지역성 상실 등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유발시켰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기존 도시형성과정에서 누적시켜온 수많은 문제들을 개선해나 가면서 미래사회변화와 위기에 직면한 대응 기술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기존의 도시를 되살려 도시 쇠퇴현상을 막고 삶에 활기를 주며 지역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여 신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과 재개발지역의 경우 전면 철거 후 신축개발이란 방법을 계속 적용해 나가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산재해 있다는 시각에 전반적인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도시들이 쇠퇴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예정지역이 종래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균형 있게 발전해나가는 새로운 건전한 패러다임의 정착과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 및 실행사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예로는 최근 국토해양부 국책과제로 도시재생사업 단²⁾이 출범하였으며,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³⁾이 진행되고 있고, 서울시는 2007년 디자인시티⁴⁾로 선정되어 이를 강도 있게 진척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지자체들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즉, 단순한 양적인 물리적 재생에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총체적 재생이 절실한 시기에 오게 되었고 이를 시도한 재생사례들은 무엇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는가에 차별적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이 중 미래 문화시대에 대비하여 문화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례들이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이 흔히 문화적 도시재생 사례로 인지되고 있다. 이 유형은 특히 또 하나의 선진 도시재생 패러다임인 창조 도시(Creative City)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다.

2.2 도시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창조 도시’

창조도시란 1995년 영국의 도시계획가 Charles Landy (Landy, 2000) 가 소책자를 통해 소개하고 2000년 ‘창조적 도시-도시재생을 위한 도구상자’를 발행함으로써 보급되기 시작한 새로운 도시재생 개념이다. 이 개념은 산업의 쇠퇴와 인구 변화 등으로 도시 황폐현상을 겪은 지역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온 사례들로부터 귀납적으로

도출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도시(Sassen,1991)에 대응하여 나온 것으로서 창조도시란, 창조적 문화 산업과 시민들의 창조적 역량이 탈공업화 시대의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고 글로벌 사회 고유한 경쟁력을 지님으로써 지역을 존속시키고 지속되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Sasaki, 2003)

유네스코에서는 미래 세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의 비중을 크게 인정하여 문화관련 산업을 진흥하고 문화적 생산물을 도모하고 이와 연관된 고용을 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결과 2004년 창조도시 네트워크 제도를 개시하고 문화, 영화, 음악, 공예와 미술, 디자인, 먹거리 문화 7개 분야를 대상으로 도시를 유형별로 인정해 주고 있다. 현대까지 선정된 도시는 다음의 표와 같다.⁵⁾

표 2.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적 창조도시

번호	도시명	선정된 분야
1	영국의 에딘버러	문학도시
2	이탈리아의 볼로냐	음악도시
3	에스파냐의 세빌라	음악도시
4	이집트의 애스윈	공예/미술도시
5	미국의 산타페	공예/미술도시
6	독일의 베를린	디자인 도시
7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디자인 도시
8	캐나다의 몬트리올	디자인도시
9	콜롬비아의 뽀빠이안	먹거리문화도시

아시아에서는 최근 상하이가 신청 중이며 일본에서도 오사카시가 「미디어 아트 도시」로 나고야시와 코베시가 ‘디자인 도시’로 신청검토 중이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래와 같은 지역에서 창조도시에 대한 시도를 다양하게 하고 있다.

표 3. 일본의 창조도시 시도 사례

번호	시도중인 시	요 지
1	요코하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리에이티브 요코하마’를 새로운 지역 만들기 의 축으로 만들. ○‘크리에이티브 요코하마’ 연구회가 지역 진흥 관련 기업 등의 참가로 결성되었음 ○‘창조도시 요코하마 추진협의회’가 2007년 7월 관민협력 협의회로 설립되었음.
2	오사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조도시 전략, 잠정적안’을 2006년에 작성 ○‘크리에이티브 오사카’라는 오사카 창조도시 시민회의를 2007년 6월에 설립. ○오사카 시립대학에 「창조도시 연구과」가 2003년 4월에 설립되어 현재 약 300여명이 연구하고 있으며 고도의 전문가 양성과 문제 해결형 ‘지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3	카나자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나자와 경제 동우회가 주체하고 이시카와현, 카나자와시 등과 실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카나자와 창조도시회의’가 2001년부터 운영.

1) 도시재생 사업단 상세 기획연구 보고서 2007.
 2) <http://www.kourc.or.kr/>
 3) <http://www.cct.go.kr/>
 4) <http://design.seoul.go.kr/>

5) <http://blog.daum.net/jinstar/159429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나자와 창조도시포럼」이 창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2002년 4월에 설립 인가 받음. ○ 카나자와 학회는 매년 개최되는 「카나자와 창조도시 회의」에서 제시하는 테마를 심도 있게 접근하여 실천과제를 토론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됨.
4	후쿠오카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 창조 디자인」문화 예술 시책을 준비중. ○ 「크리에이티브 후쿠오카 10년 계획」이 「후쿠오카시 문화예술에 의한 도시 창조 비전 검토회」로부터 2006년 3월에 제안됨.

이상의 창조도시라는 새로운 도시 재생패러다임으로 재무장하고 있는 사례는 기존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존중하고 그 지역사회에 내재하는 문화적 기후와 창조적 역량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역을 결국 총체적으로 재생시키고 있으며 또 재생시키고자 노력해온 사례들이다.

이러한 창조도시를 오사카 시립대학교의 창조도시연구과에서 내린 정의를 인용하고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창조도시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급격한 진행과 지식 정보사회로의 변용과정 속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되는 도시의 형태에 관한 하나의 이념이자 모델이다. 도시는 지금까지 수많은 문화, 예술, 학문, 사상, 비즈니스, 생활 스타일 등을 산출하는 중심이 되어왔다. 그것이야말로 도시의 활력이고 발전의 기반이었다. 창조도시란, 이와 같은 창조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요건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⁶⁾

이는 기존 문화의 보존에도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며, 문화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 그것도 눈에 보이는 즉흥적 단기적 경제 이득에 급급해 온 우리 한국 사회가, 미래 글로벌 사회에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모색해야 하는가를 자극하는 벤치마킹 모델로서 가치가 있다 하겠다.

3. 사례 분석

3.1 사례지역 배경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블로냐시 공간쇠퇴지역의 재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태리 블로냐의 창조도시 전략의 정책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이태리 블로냐의 전반적인 창조도시 전략은 이 분야 국제적 선도자인 사사키 마사유키가 그의 저서 「창조하는 도시」에서 소개한 블로냐 정책 내용들 중 관련부분만 발췌하여 재정리 소개하였다 (Sasaki, 2003; 사사키, 2004). 이태리 블로냐는 미국의 저명한 도시연구가 제이콥스(Jacobs, 1984)가 「창조도시」

라고 칭한 이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1990년 당시 GNP대비 선진국 중 최악의 재정적자를 지닌 이태리가 10년 후 2000년에는 훌륭히 재정재건을 이루었다. 성과를 거두었다. 이태리는 대형 공공사업을 구조조정하고, 산업 정책을 주 정부와 자치단체에 과감하게 분권화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기업가 정신’을 자극하고 일부 복지 서비스는 ‘사회적 협동조합과의 파트너십’에 의해 공급함으로써 시민 참가에 의한 재정의 효율화를 달성하였다.

블로냐는 산업 정책만이 아니라 문화와 복지 분야에서도 협동조합이나 비영리조직과 공공부분과의 연계 협동 노력에 의해 주민의 자발성과 창조성을 고양하고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복지 국가’를 넘어 ‘분권적 복지사회’를 만들었다. 종래의 블로냐시는 도시 경관 보존 노력과 지구 주민 평의회 도입에 의한 분권화 실험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블로냐시는 산업, 문화, 복지 영역에서 주민의 창조력을 이끌어내는 사회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선구적으로 전개하였다.

표 4. 블로냐시를 창조도시로 성공시킨 사회시스템

사회 시스템 국면	주요 요지
기능인의 대학과 포터티코의 거리 지키기	주변전경과 전통적 도시 건물 구조인 포터티코를 지키는데 시민들이 합의하여 완벽하게 보존하는 「도시계획」을 결정
기능인 기업과 유연한 전문특화	미와 예술이 일치된 생산을 중시하여 기능인의 삶의 방식과 철학 미의식 감성이 제품속에 표현되어 있는 생산과 소기업을 네트워크화 하여 차별화 대응.
문화정책과 문화협동조합	블로냐2000 주요 프로젝트로, 블로냐 도심에 문화단체 및 시민들의 다양한 기획안을 포괄한 300개의 콘서트, 2,300개의 전람회, 260개의 컨벤션, 125개의 실험실 등 함께 2000시간에 달하는 이벤트를 개최하고 협동에 의한 문화 창조로 문화 정책이 전환되었음.
복지행정과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장애인의 발달 보장 등 기본적인 인권확대를 위한 풀뿌리 주민운동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조성.
분권화와 광역적 환경관리	지구 주민 평의회의 성과가 의무화되어 복지, 유아교육, 문화 스포츠 등 지역주민의 여러 요구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도서관, 보육원, 양로원, 지역극장 등을 운영하여 주민참가에 의한 분권 사회 기초 이룸.

블로냐시의 사례연구 해당지역은 철도역 주변 주거지역으로서 크게 전매청 공장, 도축장 제빵공장 등의 주요 역사적 의의가 있는 공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주변은 노인인구와 독신인구가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재생으로 인하여 환경과 사회분위기도 크게 향상되었다. 재생된 지역주변을 소개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6) 오사카 시립대학 창조도시 연구과 홈페이지 (www.gscs.osaka-cu.ac.jp/abstract_gscs/index.html). 번역내용은 <http://blog.daum.net/junstar/15942984>



그림 1. 사례지가 위치한 인근재생지역 배치도

이전 전매청은 그 건물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여 영화 박물관(①)으로, 제빵공장은 현대미술관(②)으로, 도축장은 지역영화 문화센터(③)로, 재생되었으며 여기에 어린이보호시설(④), 대학생들의 기숙사(⑤), 지역소공원(⑥)을 설치하였다. 현재 각 건물의 장면은 아래와 같다.



위 왼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①②③④⑤⑥



그림 2. 공장쇠퇴지역재정지역주변 건물과 원경

본 지역은 중세시기 이후부터 형성되어 왔으며,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파괴되었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이전 역사건물을 복원하는데 시당국과 시민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이후 이 역사적 건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빈 공간으로 남게 되었으며, 인근 일대의 이와 동일한 현상은 이 지역을 침체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이에 시에서는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결정하고 또 이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존중하여 가능한 그대로 복원하되, 새로운 기능이 요구되는 것을 현대적 기술로 보강하는 전략을

실행하였다. 이 지역 재생 중 주된 변화를 보인 도축장과 제빵공장은 대표적 사례로서 살펴보았다.

3.2. 도축장 재생사례

도축장으로 사용된 당시 건물의 모습은 아래의 사진과 같다.



그림 3. 이전 공장지역 내 주요건물인 도축장의 재생 전 모습

도축장은 크게 영화관, 영화 도서관, 대학교 부속 예술연극학교의 지역서비스센터(local lab)로 구성되어 있으며 작은 광장을 둘러싼 형태로 재생되었다. 도축장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상징성을 지니도록 배려하였으며 원래 건물 뒤로 예술연극학교를 설립하여 예술문화 클러스터를 이루게 하였다.

도축장의 입구는 기존 건물의 특성을 살려 문화예술센터 입구로 거듭나고(①) 전통형 건물 오른쪽 도축자소는 시네마 건물 도서관으로 (아래사진②) 그 왼쪽은 영화관으로(아래사진③) 그리고 광장의 오른쪽에는 예술연극학교 스튜디오(아래사진④)로 변모되었다.



그림 4. 도축장 재활용계획



위 왼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①②③④
그림 5. 재생 이후 외관전경

이렇게 하여 도축장은 지역사회 예술 문화를 진흥시키는 클러스터로 재생을 통해 변모하였다. 도축을 하는 장소는 시네마 건물 도서관으로 재생되고 이때 건물의 구조적 부분은 살리고 채광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게 하였다. 창문사이로는 옛 건물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안뜰이 보이게 되어있다.



그림 6. 도축장 개조 후 도서관 내외부 전경

도축장의 한 부분은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영화관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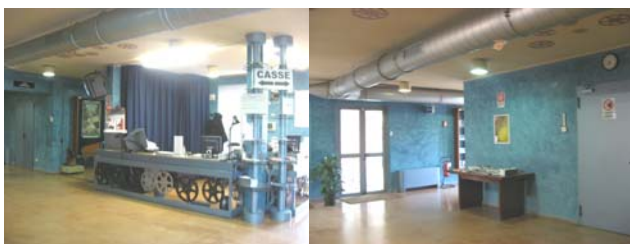


그림 7. 도축장 개조 후 영화관 변화모습

로 개조되었고, 몇 개의 관람실을 갖추고 있다. 이 건물도 구조를 보강하여 그대로 재활용해 저렴하게 문화시설로 변모시켰다.

광장의 오른쪽에 설치된 대학교 소속 예술공연 지역센터(Lab)은 기존 예술가들이 끊임없이 창의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줄 뿐 아니라 전공 대학생들이 기존 전문가와 만나 배우고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주었다. 공연무대 연습장, 강의교실 등으로 이루어진 건물은 옛 공장건물의 벽체를 그대로 보존하도록 구조적으로 보강되고 새로운 설비가 추가되었으며 현대 미학적 특성으로 재생된 것이다.



그림 8. 도축장 개조 후 Art Performance School로의 변화모습

이 지역 사례를 재생시킨 건축가 알도로시는 이 지역의 역사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수용하는 아름다운 건물들로 재생시켰다. 다음의 건축사진은 알도로시의 건축적 성향을 보여주기 위해 제시되었다.

건축적 요소들이 간소화되어 입방체, 원통, 각주 등의 입체로 축소된 그의 그림은 구성적으로 동질성을 지닌 탑과 종탑들을 담아내며, 이러한 동경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도시 안에서 혼자 동떨어져 보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일부분으로 녹아드는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 속에서, 외형적으로 참신하고 단순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디자인이 함축한 내용과 의미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러한 그의 특성은 유감없이 이 지역사례재생에서 발휘되었다.



<출처> <http://blog.naver.com/yookhms>

그림 9. 알도 로시 작품성향을 보여주는 주요작품예제

지역성은 그의 건축물⁷⁾들이 같은 주제의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세워지는 장소에 따라 건물이 변화하였으며, 이

7) 알도 로시는 1931년 밀라노에서 출생하여 밀라노 공대를 졸업하였다. 알도로시는 과거의 환경에 대한 집단적인 기억을 되살리는 방편으로 종종 원형의 형상을 이용했다. 풍요로운 도시에 대한 아름다운 드로잉은 일종의 '유형적'건축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러한 경향은 그가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물이 세워지는 곳의 물리적인 주변 환경 특성뿐 아니라 문화까지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기능은 형태를 따른다.’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라는 기존의 이론과 비교해 알도로시는 ‘기능은 형태와 독립적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텅 빈 무대’의 개념으로 설명 된다. ‘텅 빈 무대’라는 것은 어떠한 공연도 수용할 수 있는 무대로, 건축물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는 기능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개념적 철학에 의해 이 역사적인 건물은 지역성과 알도로시의 미학이 함께 공존하는 방향으로 재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실증적 차원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그 지역 환경을 크게 개선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예술문화적 감성과 가치를 고양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이러한 변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노인회관 소장과의 인터뷰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황폐화된 지역이 재생하여 삶의 가치를 높이는 주거환경권으로 변화했음은 지역주민들이 크게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을 유입하여 보다 지역을 활발하게 하였고, 또한 예술 문화시설을 추가하여 여가시간을 중시하는 사회를 대비했음에 만족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이 아쉬워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다. 건물의 기능전환으로 젊은 대학생을 유입하여, 노인비율이 높은 인근지역에 같이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좋으나, 반드시 대학생을 살게 한 자체가 상호작용을 발전시키지 않으며, 여전히 노인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젊은 층과 노인층은 활동시간대가 다르고, 젊은 층의 시끄러운 소음 문제 때문에 노인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지적하고 노인층에 대한 배려를 좀 더 잘 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노인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노인 회관을 노인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며, 클럽회원제와 같이 회원비를 내고 다목적 활용공간으로 계획하면 더욱더 지역 주민과 통합될 수 있었을 것이라 여기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 가족이 진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 회관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주민의 지적은 도시재생시 진정으로 다양한 거주자들 간의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정교한 계획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3.3 제빵공장 재생사례

재생전략으로, 전형적인 고전 양식의 건물 외관은 그대로 보존되고 내부에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였다. 아래의 사진과 이미지는 건축물의 외관을 살리면서 현대미술관의 기능으로 재 기획된 현대 미술관의 모습 및 공간 재생계획을 보여주고 있다. 옛 건축과 현대적 실내건축이 변화하는 삶과 문화를 지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문화를 함께 지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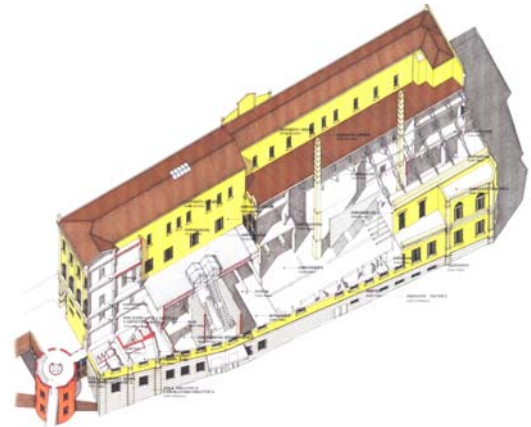


그림 10. 옛 제빵공장의 현대미술관으로의 재생계획

제빵 공장은 1915년 세계 1차 세계대전의 밀가루 공급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정부 제빵공장의 기능으로 건립되었다. 이 건물은 1928-1929년에 소비자 자치단체본부로 사용되면서 현재 건물 규모로 확장되었다. 이제 이 시대의 예술문화지역센터의 박물관 즉 현대미술관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접하게 되었다.

이 건물은 두 단계의 건설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며, 106미터나 되는 장엄한 외관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구조와 실내공간조직을 완전히 복원시키고 새롭게 설비하였다. 불필요하게 누적된 부분을 제거하고 필요한 배관과 안전설비를 부가하였다. 동시에 새롭게 삽입시킨 부분들로서 여러 층을 연결하는 건축부분들이 있다. 지하와 1층, 중층을 연결하는 계단실과, 내부와 외부 원형건물 그리고 인근 이전 도축장이 재생되어 새롭게 탄생된 예술대학 건물 입구로까지 연결하는 다리가 그것이다.

모든 공간이 현대미술관에 장애인도 접근 할 수 있도록 무장애 건축으로 배려되었다. 온도조절은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게 하였으며 매우 정교한 안전경보시스템으로 강화되었다.

사례지역의 여러 건물들 중 현대 미술관으로의 전환 공사 중인 공장 개조과정 장면으로서 기존 빵공장의 구조물과 벽을 그대로 활용하고 실내를 현대적으로 재 마감하는 과정이다. 이 제빵공장은 거대한 공간을 구조적으

로 받쳐주는 기둥과 높은 천정 구조물들을 그대로 살리면서 개조하고 있다. 기존의 골조를 그대로 두고 구조적으로 보강을 하는 작업, 오리지널 벽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제반 구조 및 설치물들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또한 기존 구조물 외에 빛을 충분히 들일 수 있는 채광 천장이 있는 부분들이 더해지기도 하였다.



<출처> MaMbo AL FORNO DEL PANE. Skira
그림 11. 공장 개조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빵공장은 그 전통적 건물 모습을 남기면서, 현대적 기능 변화를 하였다. 2007년 지역사회에 그 모습을 보인 MaMbo (Museum art of modern at Bologna) 현대 미술관이다. 건물의 한 쪽은 지역사회 특성을 그대로 살려 주변지역과 어우러져 형성되어 있으며, 들어가는 입구는 한쪽이 열린 포티코의 구조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 현관으로 들어가면 실내에서부터 미술관의 연대와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는 전이 공간을 볼 수 있다.



그림 12. 공장 외관 및 현관홀

1층 공간은 제빵공장으로부터 존재하였던 높은 천정의 구조를 보강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정까지의 내력벽을 그대로 조형적 요소로 살렸으며, 기존의 불필요한 벽체를 제거하고 필요한 부분만 간결하게 남겼으며 예술품이 살아 보이도록 배경색을 단순하게 마감하였다. 그러므로 이 전시 공간 자체가 하나의 역사적 공간으로서의 전시 공간이 되는 동시에 이 공간에 전시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이중효과를 지녔다.



그림 13. 1층 전시실내부

2층 전시장은 길게 복도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는 다원적 문화를 융합적으로 창조해내는 예술가의 작품이 진열되어 있다. 갤러리 벽에는 옛 건축의 텐넬 모티프와 아치 몰딩을 그대로 살렸다. 그러므로서 2층 전시 공간 역시 역사적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물이자 예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적 맥락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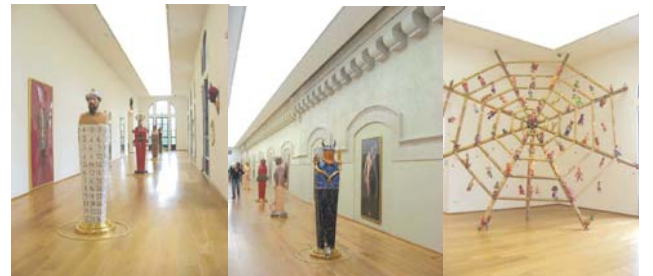


그림 14. 2층 갤러리 홀

위의 회랑식 전시관의 옆으로는 여러 개의 방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각 공간에는 다양한 전시물이 채광 조건이 좋은 쾌적한 상태에서 그 고유한 디자인 특성들을 드러내고 있다.

3.4 종합논의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고 전면 철거 후 새롭게 신축하는 도시계획이 아닌 기존의 도시 모습을 보존하면서 현대적 기능을 담아 안는 도시재생 사례로서 이태리 볼로냐의 한 이전 공장이었던 쇠퇴지역을 사례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창조도시로서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는 볼로냐는 전반적 문화존중 정책 기반에서 도시 전체가 문화와 예술의 정신을 담은 도시로 변모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과 시대의 변화로 비게 된 이전 공장지역이 쇠퇴하여 도시의 위험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문화정책에 맞게 영화예술문화센터, 현대미술관 등으로 개조하고 인근 지역 다양한 거주자들의 삶이 교류되도록 보육시설, 대학생 기숙사 등도 함께 포함시켜 이 지역을 지속 가능 가치를 지닌 지역으로 변모시켰다. 기존 건물에서 보존되어야 할 부분들을 정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뒤 구조적으로 보강하여 아름답고 기능적인 현대 공간을 창조하였으며 여기에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삽입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전환시키는데 성공하였다. 특히 지

역적 건축특성을 되살리는데 그 성향이 적합한 건축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지역문화맥락을 그대로 살리려는 계획과 실제의 결과가 일치된 성공사례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4. 결론 및 제언

최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바뀔에 따라 도시재생의 의미가 강조되고, 도시재생의 핵심적인 기존공간의 재활용에 대한 기술이 축적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생의 기술이 축적되어 있지 않는 한국에서 선진 사례를 통해 지혜와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재생의 글로벌사례라 여겨지는 이태리 볼로냐시의 한 쇠퇴지역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생되고 재활용되고 있는지를 현지 답사하여 그 과정과 결과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 현대의 문화를 선도하는 지역 영상예술 문화센터와 현대미술관으로 거듭난 도축장과 제빵공장 공간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정리하여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 과정에서 시의 행정 담당자 그리고 이에 참여한 전문가의 인터뷰 및 그 지역의 고유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였으나 이러한 자료에 기반한 한계가 있으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인터넷과 문헌정보가 발달한 다하여도 현장의 살아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를 찾고 정리하고 소개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지역에 내재하는 문화를 쉽게 간과하는 한국의 재개발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사례는 지역문화를 존중함으로써 지역도 재생시키고 이와 더불어 그것이 속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정서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또 다른 지속적인 삶의 재생 기회를 만든 것이라 여겨진다. 이 후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볼로냐시가 창조도시로 성공하게 된 사회적 시스템이 심층적으로 다루어져 재생과정 노후가 한국도시를 거듭나게 하는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강동진, 산업유산의 재활용방법 탐색,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03
2. 김영, 김기홍, 김경환, 지방쇠퇴도시 도심공간분석과 도시재생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환경학회 논문집 <주거환경>, 통권 8호, 2007.12
3. 김희진, 건축의 보존재활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4. 박경옥, 조현주, 이상운, 주민 커뮤니티센터 활용을 위한 농촌지역 폐교의 리모델링 계획,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006.04
5. 박승수, 역사적인 건물의 재사용과 증축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6. 사사키 마사유키,(정원창 역), 창조하는 도시. 사람:문화:산업의 이해. 도서출판 소화 .2004.7
7. 오동훈, 권구황, 도시재생전략으로서의 도시문화마케팅 해외 사례 연구, 국토계획, 통권 158호, 2007.10

8. 이지현, 동정근, 산업유산의 경관요소 적용을 통한 문화경관형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0
9. 이한기, 역사적 건물의 미술관 전용사례 연구, 한국박물관건축학회 논문집, 통권 제6호 2002-02
10. 이향란, 이상준, 나주시 근대건축물의 보존과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일반인세션(2008-04)
11. MaMbo AL FORNO DEL PANE. Skira, 2008
12. Austin, Richard L. Adaptive Reuse(Issues and Case Studies in Building Preservation), Van Nostrand Reinhold, 1988.
13. Robert, Philippe, Adaption/New Uses for Old Buildings,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89.
14. Jacobs, Jane, Cities and the Wealth of Nations : Principles of Economic Life, New York : Random House, 1984
15. Landry, Charles, The Creative City-A Toolkit for Urdan Innovators, London, DEMOS, 2000
16. Mumford, Lewis, The Culture of Cities, New York : Harvest Book, 1938
17. Sasaki, Masayuki, Soozoo Toshi no Keizaigaku ("The economics of the creative city") Keisoo Syboo Publishers, Tokyo. 1997
18. Sasaki, Masayuki, Soozoo Toshi heno Tyousen ('The Challenge for the creative city') Iwnanami Shoten Publishers, Tokyo, 2001
19. SASAKI, Masayuki, Kanazawa: A Creative and Sustainable City, 政策科學10-2, 2003
20. Sassen, Saskia, The Global City : New York, London, Tokyo,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투고(접수)일자: 2008년 5월 26일

심사일자: 2008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6월 2일